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독서감상문 대회**

부서관후보생 240기 독서감상문 대회

심사평 및 심사결과

교육사령부가 주최하는 독서감상문대회 심사 일도 햇수로 3년이 되었다. 같은 책에 어슷비슷한 독후감을 검토하면서 그중에 그래도 가장 나은 글을 선정하는 일은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많은 생각을 일게 한다. 무엇보다도 독서감상문대회에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런데 응모글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우선 친일논란의 문제이다. 해방후 정치사의 여러 우여곡절로 인해 친일파에 대한 극복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구분해서 생각할 일은 일본군 출신이라고 해서 다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군경의 경우에는 국가 재건에 필요한 인재로서 악질 친일분자를 제외하고는 국가건설의 역군으로 당시 정부와 국민이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국가라는 국내 일부세력의 주장도, 아직도 친일세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과거의 실상을 마치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부 국내 정치세력의 선동에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듯하다.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면 현재의 친일 실체를 적확하게 적시하면서 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세력의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분단과 대치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협력을 위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남북의 화해와 평화협력은 북한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실상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인식을 바탕 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단순한 적개심만도 아니고, 막연한 평화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전쟁과 수십 년간의 무력도발을 하는 그들의 기본태도에도 변화는 없다. 북한은 유물사관에 입각해 역사를 왜곡시켜 세뇌시키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반인륜집단이며 북한주민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없이 노예상태에서 살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러한 북한의 실상을 희석시키거나, 희석이 희석될 수도 없다. ‘자유’의 ‘적’과 ‘불의’ 앞에 정신이 무장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이러한 인식은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장려’는 성현준 후보생의 「저자의 삶을 통해 참된 공군인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다」로 정하였다. 책을 통해 스스로 10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다만 감상문 본문의 내용의 깊이가 아쉬웠다. 우수는 김자겸의 「3가지의 애국심」로 선정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해 깊은 고뇌가 보인다. 남북문제는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한 주민을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실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우리의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친일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듯한 표현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최우수’는 박예찬의 「우리가 꿈꾸는 창공, 내가 이뤄야 할 꿈」으로 정하였다. 이 독서감상문 대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간부 후보생으로서 임할 핵심 내용을 평이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그 외 이예원, 윤아로, 김태환, 정주아, 전원호, 박혜린, 최현지, 임다현, 양한용 등의 글도 인상에 남는다. 독서감상문대회는 참여자의 능력이나 각오의 정도에 우열을 가리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각자가 교훈을 터득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공군교육사령부의 독서감상문대회는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240기 부서관후보생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이윤식

독서감상문 대회 심사위원 이윤식

부사관후보생 240기 독서감상문 대회 입상자 명단

* 선발인원 : 최우수(1), 우수(1), 장려(1)

이름	소속/교번	수상명	독후감 제목	점수
박예찬	부사관교육대대 1222	최우수	우리가 꿈꾸는 창공, 내가 이뤄야 할 꿈	85.4
김자겸	부사관교육대대 2311	우수	3가지의 애국심	85.2
성현준	부사관교육대대 2129	장려	저자의 삶을 통해 참된 공군인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다	85.0